

“광주시의장 자리 지켜라” 비상걸린 더민주

총선 국민의당에 광주 8석 내주고 전남도의장까지 빼앗겨 시의원 13명으로 우위... 중앙당까지 나서 이탈표 막기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지난 4·13 총선에서 텃밭인 광주 8석을 모두 국민의당에 내준 더민주의 최근 전남도의회 하반기 의장선거가 국민의당에 빼앗기자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중앙당까지 나서 집단 단속에 나서고 있다.

29일 더민주 광주시당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의원 구성은 더민주 13명, 국민의당 8명, 무소속 1명이다. 정당 분포와 숫자상으로는 더민주 조소성 의원, 국민의당 이은광 의원의 양자대결에서 조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당 소속 일부 의

원들의 이탈 조짐이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더민주 소속 의원 13명 가운데 4명이 당적보다는 친소관계 등을 앞세워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 중 2명은 최근 구성된 더민주 교섭단체에도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전남도의회 의장선거에서도 수적으로 열세였던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당선되자 더민주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더민주의 이미 전국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다른 정당과의 연합이 없도록 관리·감독하고 사전 선출된 당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

다고 지시하며 징계 경고까지 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의장선거의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행위’를 명확히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중앙당 지침은 사실상 무용지물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도 ‘마지막 보루’적인 의장직마저 내주는 사태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당 지도부까지 동원해 해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직접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결집을 호소하고 있고, 더민주 일부 국회의원들은 친분이 있는 시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의사정렬을 조율하는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가 열리는 7월 4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그 전에 해당 의원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처럼 중앙당이 지방의회 의장 선거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 역행’ 논란이 일고 있지만, 더민주가 얼마나 절실했으면 당 지도부까지 나서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해당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체 의지도 밝혔다. 더민주 광주시당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의 교섭단체 불참은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당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일종의 해당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응분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징계를 들먹이다가 어르기도 하고 말려기도 하는 형국이 더민주의 다급한 실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며 “더민주의 총력전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의회 거수기 전락”

집행부 조례안 77% 원안통과

감시·견제 지역할 미흡 지적

전남도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 등을 별다른 제재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자동 의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도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없이 집행부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제10대 하반기부터 도의회가 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지사(92건)와 전남도교육감(27건)이 제10대 전반기(2014년 7월~올해 6월) 기간 동안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모두 119건이다. 이중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77.3%인 92건이었다. 나머지 27건(22.7%)은 수정 가결됐으며 부결된 조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제9대(2010년 7월~2014년 6월) 편 모두 189건의 집행부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돼, 81.5%인 154건이 원안가결됐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34건(17.9%)이었으며 부결된 조례안은 1건(0.5%)이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상당수가 원안대로 가결할 수 밖에 없는 상위법 개정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결된 건수가 지난 6년간 단 한 건에 불과했다는 것은 도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사실상 소홀했다는 증거다.

주변에선 당시 일당 독점체제에서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도정을 덮어주고 대내외적인 비판을 막아주는 가림막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의원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 다음달 1일 열리는 10대 하반기부터 일당 독점체제에서 양당체제로 바뀔 만큼 도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종형기자 golee@

제2순환도로 송암~유덕 하이패스 다음달 1일 개통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송암영업소와 유덕영업소의 하이패스 차로가 7월1일 자정을 기해 개통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3-1구간 송암영업소와 4구간 유덕영업소 하이패스 공사를 최근 마무리했고, 1구간 소태영업소는 9월1일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이패스 차로는 본선 기준으로 상·하행 각 2차로씩 운영되며, 전국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 외 현금징수 차로에도 카드결제 기능을 도입해 하이패스 로고가 새겨진 전자카드나 선불교통카드를 요금소 외부단말기에 접촉하거나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창현 광주시장은 29일 오후 중국 광저우 백조호텔에서 열린 ‘광주 세일즈데이’ 행사에서 광저우시 주요 여행사 등과 관광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남호국제여행사 부리가이 총재, 윤 시장, 광동성 중산국제여행사 우현 총재. <광주시청 제공>

윤창현 시장, 中 광저우서 9100만달러 세일즈 외교

제조업·문화·관광분야 홍보

중국 광저우시를 방문중인 윤창현 시장 등 광주시 방문단은 29일 광저우 백조호텔에서 ‘광주 세일즈데이’ 행사를 열고, 광주의 제조업과 문화·관광 분야의 상품을 홍보하고 현지 판매했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 업체들의 중국 수출은 물론 중국 업체의 투자 협력이 함께 이뤄지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투자환경 설명회에는 광저우시 차이차오린 경제부시장과 광동성 주요 기업인 모임인 월성회의 동후이 집행이사장 등 130

여 명이 참가해 광주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투자환경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벨리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을, 광주그린카진흥원은 광주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투자전략을 소개했다. 91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수출협약도 체결됐다.

광저우 세뇌투자관리유한공사(세뇌)가 향후 설립될 아시아문화산업펀드 2호에 600만 달러를 투자(출자)하되 세뇌시장은 펀드 운용사가 선정되면 협의하기로 했다. 광저우 중터우 문화 유한책임회사와 세뇌 등 2개사는 500만 달러를 공동 투자해 영화 특수효과 합

작회사를 광주에 설립할 예정이다.

광주 소재 (주)대농인프라는 중국 베이징의 커루이통 전기자동차설비 유한공사와 7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맺고, 산둥지역에서 국가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농촌 현대화 프로젝트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자재 조달과 비료를 공급하기로 했다. (주)매직론은 광동성 중산시의 차오양리 콘텍트렌즈 유한공사와 컬러 콘텍트렌즈 500만 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문화산업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광동·광저우 지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과 게임 산업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스튜디오더블유비바(주)와 (주)중앙애니메이션은 35억원 규모의 계약과 협약을 체결했다.

유커(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협약과 관광설명회도 현지 여행사 대표와 관광업체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윤 시장은 “이제 광주의 라오펑우(老朋友·오랜 친구인) 광저우와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면서 양 도시 기업인들 간에 무역, 투자 등 경제 분야는 물론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갈 기원한다”며 양 도시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퇴임식 대신 강의하고, 취임식 대신 실과 방문

김영선 道 행정부지사 오늘 퇴임

신임 김갑섭 부지사는 내일 취임

30일 명예퇴임하는 김영선(58)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1일 취임하는 김갑섭(58) 신임 행정부지사가 각각 퇴임식과 취임식을 갖지 않기로 해 화제다.

김영선 행정부지사는 직원들에게 마지막으 강의를 하는 것으로 퇴임식을 대신했고, 김갑섭 신임 행정부지사는 실·과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취임을 알릴 예정이다.

김영선 행정부지사는 지난 28일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전남은 인구절벽의 최전선에 있으며, 한국전력의 이전에 의해 에너지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졌다”며 “전남이 융성을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도민을 위해 전남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임기동안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없이 조직 내부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이는 조직이 건강하다는 의미로, 이낙연 전남지사의 역할도 컸다”고 덧붙였다.



김갑섭 부지사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83년 3월 28일 사무관으로 임용돼 33년 3개월을 공직에서 보낸 그는 “앞으로 전남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김갑섭 신임 행정부지사는 1일 각 실·과를 돌며 ‘취임 신고’를 하고, 4일 정례조회에 참석 2016년 하반기 인사안 검토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윤현석기자chadol@

전남산 삼계탕 中 식탁 오른다

사조화인코리아 수출 기념행사

전남산 삼계탕이 중국인 식탁에 오른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 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나주 소재 (주)사조화인코리아에서 생산한 삼계탕의 중국 첫 수출을 앞두고 기념행사가 열렸다. 기념행사는 사조화인코리아를 포함

해 중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는 작업장 5곳(전북 2, 충북 2 포함)이 공동으로 참여해 공동 CI(K-samgyetang)를 부착하고 통관절차를 점검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수출 작업장 등록 신청, 현지 실사, 시설 개선, 정보 제공 등 수출 작업장 등록과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윤현석기자chadol@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램**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광신프로그램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임차료는 3개월보증임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연간 월임 100만원** 이하입니다.

문의 **062-511-1141**

시흥 1주에이치원 시흥 (주)광신종합건설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골, 소나무, 단풍나무, 황금공작편백,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4,745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신.C 15분 / 문평.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